땅에서 긍지를 찾는 사람들

드라마 <전원일기>, <대추나무 사랑걸렸네>로 보는 농업인의 직업병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촌드라마인 <전원일기>와 <대추나무 사랑걸렸네>는 1980~1990년대 농촌의 풍경과 삶을 생생히 담아냈다. 이 시기는 농업의 근대화가 이뤄지던 때였지만, 그렇다고 농업인의 일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은 아니었다. 농촌의 고령화라는 사회적 문제가 더해지고, 농업 특성상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고 다양했기 때문이다. 첨단 농기계와 비료가 도입되었음에도,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일은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다.

글 공주영

▶ ■ ⏸ 04:51 / 25:11

©전원일기1086 숨쉬는흙 캡처화면 imbc.com

#01 한국 농촌사회의 변화와 농업인의 애환

<전원일기>와 <대추나무 사랑걸렸네>는 한국 농업의 변천과 농업인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드라마로 <전원일기>는 주로 1980년대를, <대추나무 사랑걸렸네>는 1990년대의 농촌을 배경으로 한다. 두 드라마 모두 1970년대 새마을운동 이후, 농기계 사용이 확대되어 우리나라 농촌에 근대화가 이루어진 시기를 다룬다. 농촌 근대화는 농기계나 비료, 농약의 보급이 활발해지면서 농업 생산량은 늘었지만, 이 시기부터 청년층이 도시로 이주해 가면서 농촌의 고령화가 가속된 시기이기도 하다. 드라마 또한 농촌을 떠나고 싶어 하는 젊은 세대의 모습과 농촌에 남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애환을 여실히 보여준다. 하지만 두 드라마는 농촌의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땅(농촌)과 함께 사는 인간의 존엄'을 보여준다.

특히 <전원일기>는 농업이 비록 힘들지만, 일은 삶의 근본이자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 농업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점점 산업화로 변화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농업을 생업으로 삼는 이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 농업 다큐드라마라고도 부른다. 반면 <대추나무 사랑걸렸네>는 사라져가는 농촌의 정서에 초점을 맞춘 드라마로, 젊은이들이 떠난 농촌에 남은 노인들과 중년 농민이 농지와 생계를 지키려 애쓰는 모습을 보여준다. 전통 농촌의 가치를 중요시하며 기술보다는 손발로 농사를 짓는 세대와 새로운 농업을 실험하려고 하고 현대화된 농법을 시도하는 젊은이들 사이의 갈등도 볼 수 있다.

#02 일인다역으로 근골계질환에서 과로사까지

대부분의 산업은 생산, 관리, 유통 등 각 과정을 맡는 담당자가 정해져 있지만, 농업은 농업인이 이 모든 과정을 도맡아야 한다. 토양 관리와 파종, 병충해 방제, 수확, 판매까지 단계마다 모든 역할을 직접 수행해야 하기에 그만큼 고단

할 수밖에 없다. 드라마 속 등장인물의 모습에서도 이러한 농업의 고단함을 자주 볼 수 있다.

<전원일기>의 민재(최불암)는 전형적인 자영농*으로, 여러 가지 일을 스스로 해내는 농민이다. 일이 끊이지 않는 만큼 허리·무릎 통증이나 과로에 시달리는 모습이 자주 묘사된다. 트랙터나 경운기 등 농기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둘째 아들 용식(유인촌) 역시 같은 문제를 겪는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산업의학교실에서 발표한 「농업인의 작업성 질환」(이수진, 2010)에 따르면, 농기계가 보급되었더라도 농한기가 거의 사라지면서 노동 강도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장시간 노동과 과도한 신체 부담 작업으로 허리, 무릎, 고관절 등 근골격계질환이 농업인에게 흔한 건강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 조사」(농촌진흥청, 2022)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농작업 관련 질환 중 근골격계질환이 96.5%를 차지했다. <전원일기>에는 민재가 농사일 중 과로로 쓰러지고, 용식 또한 과로로 쓰러질 뻔한 장면이 등장한다. 이는 농업인이 여러 일을 도맡아 해야 하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최근에는 고령의 농업인이 여름 폭염 속에서 장시간 농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사망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2024년 농촌진흥청 발표에 따르면, 폭염 사망자의 약 40%가 65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으로 나타났다.

#03 농기계 사고 위험과 농약 중독 등 고질적인 직업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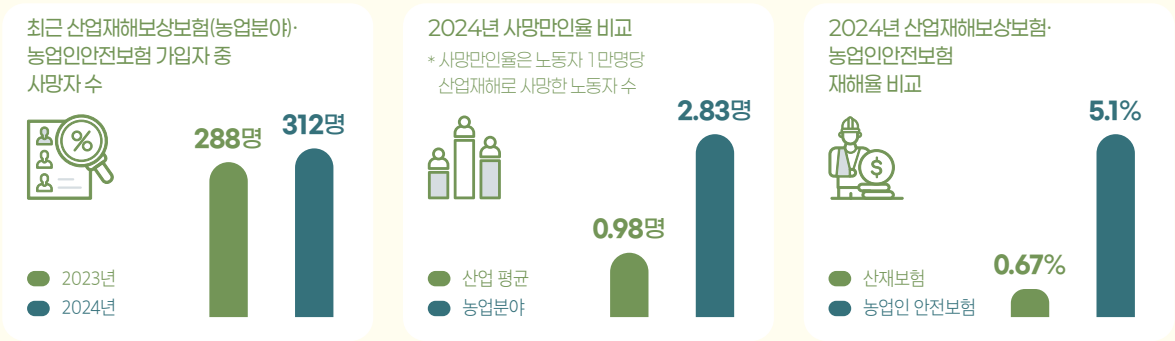
폭염만큼이나 농업인을 위협하는 또 다른 위험 요인은 농기계 사고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보상보험(농업 분야)과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 110만 1,766명 중 312명이 농작업 중 목숨을 잃었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농기계 사고로 인한 것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서도 최근 5년(2019~2023년)간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 중 사망자의 54%가 농기계 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 중독 또한 여전히 농업인의 대표적인 직업병이다. 농약은 급성 중독뿐 아니라 장기간 노출 시 호흡기 질환, 신경계 질환, 여성 호르몬 관련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의 조사 결과, 밭작물·과수 재배 농가의 절반 이상이 농약 중독 경험을 호소했으며, 시설하우스 재배 농가에서는 68% 이상이 중독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농업 현장은 여전히 폭염·과로·농약 노출 등 열악한 환경 속에 놓여 있다. 더불어 기후위기까지 심화되면서 농업인의 노동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농업인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노력이 절실하다.

* 자영농: 자신의 소유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직접 경영하는 농인

농기계 사고로 인한 농업인 사망자 현황



출처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